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독교 박해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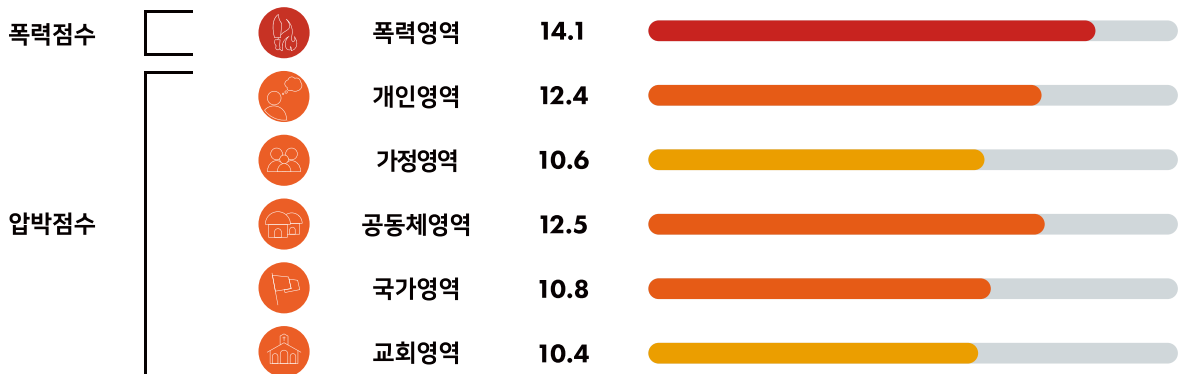
26 위

방글라데시 (BANGLADESH)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 x 16.7=100)

중요한 발견

방글라데시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배경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무슬림, 힌두교, 불교, 그리고 소수 민족/부족 출신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장 심한 제한과 차별, 공격을 받는다. 이들은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규모 가정 교회나 비밀리에 모이는 경우가 많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가 가장 큰 박해의 한 가운데 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역사적인 교회도 점점 더 공격과 살해 위협을 받는다. 부족 기독교인들은 소수 민족으로, 종교적으로도 약자에 속하여 이중적으로 취약한 이유로 토지를 빼앗기고 폭력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치타공 언덕 지역에서 전례 없는 폭력 사태로 8명의 부족 기독교인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난 온 무슬림 로힝야족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역 사회로부터 괴롭힘과 강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방글라데시 (BANGLADESH)

국가 정보

지도자 : 셰이크 하시나 와제드 총리

인구 : 167,432,000 명

기독교인 수 : 950,0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950,000	0.6
이슬람교	150,497,000	88.8
힌두교	15,791,000	9.3
불교	1,241,000	0.7

출처²

방글라데시는 오랜 기간 불안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71년 전쟁을 통해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비교적 젊은 국가이다. 그 후로 민간정부와 군부 통치가 번갈아 가며 집권하여 왔으며, 선거 때마다 많은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 방글라데시는 2015년부터 권위주의적 통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4월의 세계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전체 인구 89%가 무슬림이며 대부분 수니파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계와 정부 간의 관계가 양호하였으며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2014년 7월 가톨릭 여성을 개인 비서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속 언론

과 다양한 종교인들이 잇따라 살해되면서 기독교계는 두려움을 느끼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다.

최근 무슬림 급진주의가 증가하고, 힌두교(전체 인구의 9%)가 공격을 받았다. 기독교인은 극소수이며 차별을 당한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급진 이슬람 단체와 이슬람 문화로부터 압박을 받고 많은 폭력을 직면한다.

무신론자나 인권 옹호를 향한 살해 협박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DW, 2020년 8월 24일). 초법적 살인과 실종에 대해서는 제재를 포함한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되고, 정부와 보안군은 감시를 받으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로위 연구소, 2023년 1월 26일). 2022년 6월, 오랫동안 존경 받아온 인권 단체인 오디카르에게 정부가 재등록 허가를 거부한 것은 이러한 압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독재적 편중증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2023년 9월에는 다카 사이버 재판소에서 오디카르의 설립자들이 각각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14일 베나르스 뉴스). 이것은 정부가 통치와 이미지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준다.

¹ Data sourc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² Data sourc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방글라데시의 기독교인 약 절반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들은 전국적으로 교구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인들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소수 민족과 부족이 있는 치타공 언덕 지역이 가장 강하다. 개신교는 침례교, 형제회, 루터교, 제칠일재림교, 하나님의 성회, 방글라데시 교회 (성공회와 감리교 연합) 등이 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98%가 벙골인으로 민족적으로 동족이며, 차크마족과 같은 소수 민족도 존재한다. 또한, 치타공 언덕 구릉지에는 “언덕 부족” (예: 가로, 산탈, 바움족)이 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다. 이들은 당국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고, 다른 힘 있는 공동체들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다. 예를 들면, 집과 밭을 파손 당하고 토지를 강탈 당하는 문제가 반복된다. 집과 밭을 파괴다. 이들이 이중적으로 취약하게 되는 것은 작은 부족이라는 것과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이다. 다른 부족으로부터의 공격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8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치타공 언덕 지역과 많은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북부 지역은 무슬림 다수와 소수 불교도에게 자행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가장 무시 받는 지역이다. 2023년 4월에 일어난 공격은 종족과 종교 간의 적대감이 얼마나 거센가를 증명하였다. 지난 몇 년 간 방글라데시가 또 다른 분쟁 지역이 된 것은, 인접한 미얀마에서 백만 명 이상의 무슬림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이들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남동쪽의 끝에 있는 콕스 바자르 행정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제 사회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을 돌보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난민 송환 노력이 중단되고 난민들이 캠프에 오래 머물수록 일부가 이슬람 급진화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더우기 미얀마 군사 정부가 미얀마 라카인 주에 남아있는 로힝야 소수족을 계속적으로 탄압함으로 인해 난민들이 미얀마로 돌아갈 상황이 더욱 불가능하게 되었다. 난민 캠프 안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극소수의 로힝야족도 있다. 이들은 점점 거세지는 탄압과 폭력을 겪고 있지만 탈출할 방법은 없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대사관 직원과 중요한 섬유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며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에게 감시받고 위협 당한다. 이 공동체는 미얀마에서 온 로힝야족도 포함한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방글라데시 성공회를 포함하며 종종 위협과 감시를 당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부족과 같은 다양한 배경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있다. 특히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박해를 당하며 보통 비밀리에 모인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 침례교, 그리고 오순절 교회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오순절 교회인 하나님의 성회는 주로 가정교회로 모여 예배 드린다. 이들에게는 폭력적인 공격과 위협이 있다.



©Alamy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이슬람의 탄압과 혼합된 독재 정치

방글라데시의 정치는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 사이에 적대감이 팽배하여, 두 정당 모두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이슬람 단체에 굴복한다. 기독교인들과 다른 소수 종교인들은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는 자유로운 편이나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이 증가하면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황스러운 점은 야당이 정치적 폭력의 역사를 지닌 급진 이슬람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종교적 민족주의 : 불교와 힌두교의 민족적-종교적 적대감

기독교보다 불교는 두 배가 많고, 힌두교는 10 배 이상이 많다. 불교도는 대부분 인도와 미얀마의 국경을 접한 원주민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불교도인 차크마 부족이 점점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개종자들은 지역 사회와 부족 지도자, 그리고 급진 불교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힌두교의 지도자와 가족은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힌두교로 회유하려는 거센 압박을 가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방글라데시의 문화는 계급에 기반한 가부장적이므로 여성으로 살기에 어려운 나라이다.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종이 문화와 종교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남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성폭행이나, 강간, 강제 결혼이 흔히 일어나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다. 납치와 강제 결혼은 난민촌을 포함하여 모든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다. 많은 소녀들이 아직 실종 상태이며, 법 집행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폭력-정신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방글라데시는 가부장적 문화로 남성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가족의 지도자로 인식되어 남성과 소년들이 먼저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흔히 구타와 협박을 당하고 허위 고발과 투옥을 당한다. 공동체와 무슬림 지도자들 때문에 남성들이 집에서 도망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신앙 직장을 잃거나 투옥되는 경우에는 온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

남성이 겪는 전형적인 압박 지점들:

- 사회 공동체 및 연결 망 접근 제한
- 자녀 양육권 박탈
- 허위 누명
- 도시/국가에서 도망해야 하는 상황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신체적/정신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26	71
2023	30	69
2022	29	68
2021	31	67
2020	38	63

WWL 2024 보고 기간에는 2023에 비해 1.9점이 올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은 2023년 4월에 발생한 8명의 기독교인 부족 살해 사건으로 인해 폭력 점수가 4점 오른 것 때문이다. 모든 영역에서 압박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은 상황이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2024년 1월에 있었던 선거로 인해 정국이 불안정하여 보고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러 출신으로부터 온 기독교 개종자들 외에도 일반적으로 기독교 소수 집단은 계속 차별과 무시, 폭력으로 압박을 당한다.

보고 기간 내 폭력 사례

- **2023년 4월**: 세 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는다.
- **2023년 4월 6일** : 치타공의 두 부족 사이에 일어난 총격전으로 바움 부족 기독교인 8명이 살해당하였다. 치타공 Hill Track (UCA 뉴스, 2023년 4월 12일)
- **2023년 2월 27일** : 텔루구 언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 1000명 이상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고, 사우스 다카주 돌푸르에는 2개의 교회가 파괴되었다 (아시아 뉴스, 2023년 2월 27).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 기독교인	구금당한 기독교인들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나 기독교 건물
2024	10	6	10*	2
2023	3	10	7	2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Pexels

개인영역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개종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며 자신의 개종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앙을 밝히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박해와 따돌림과 위협을 받는다. 가족과 사회의 감시로 인해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가족영역

자신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가족을 양육하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기독교 예식은 종종 폭도들로 인해 중단된다. 기독교인이나 개종자의 자녀가 학생인 경우, 이슬람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이슬람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조건적 혜택은 비이슬람 학생에게는 주어지지 않음으로 차별 당한다. 또한 기독교인 교사도 부족하며, 개종자들의 자녀들은 이슬람 학급에 다니고 이슬람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체영역

기독교인의 소수로서 사회와 경제적으로 공동체들이 보조를 할 때, 급진 이슬람은 보조하는 공동체에게 기독교인들과 적대적 관계가 되도록 조장하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급진 이슬람

단체는 취약한 가정을 표적으로 삼아 개종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돈과 음식, 교육을 약속한다. 개종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폭도들의 폭력이 최근에 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1972년 방글라데시 헌법 28조 1항에서 "국가는 종교, 인종, 계급, 성별, 또는 출생지를 이유로 국민을 차별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 29조에는 공공 고용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종교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국가영역

헌법 제 41조 1항에는 종교를 자유롭게 고백, 실천, 전파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법적으로 개종을 원하는 사람은 변호사에게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본인의 자유 의지와 개인적인 이유로 종교를 변경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무슬림이 되고자 하는 기독교인, 불교인, 힌두교인의 경우에는 이 절차는 거의 형식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무슬림은 변호사에게 압력을 받고 때로 개종 등록이 (불법적으로) 거부되기도 한다.



교회영역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면서 활기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되었다. 급진 이슬람 단체들이 교회를 감시하고 전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는 괴롭힘과 폭력으로 위협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가족과

지역 사회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폭력적 보복이 두려워 개종한 무슬림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두려워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방글라데시는 다음 국제 조약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방지 협약 (CAT)
4. 여성 차별 철폐 협약 (CEDAW)
5. 유엔 아동 권리 협약 (CRC)

방글라데시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에 의해 배척을 당하고 반대에 직면하며, 이혼과 자녀 양육권 박탈로 위협을 받는다 (ICCPR 제 18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다 (ICCPR 제 18조, CRC 제 14조)
-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에서 고용에 제한을 당하고, 민간 부문에서 차별을 당한다 (ICCPR 제 25조, 26조, ICESCR 제 6조)
-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 논의하거나 전도에 참여할 때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다 (ICCPR 제 18조, 19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미국 국무부의 IRFR 2022 방글라데시에서 발표한 내용: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수 민족의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인에게 자행되는 집단 폭력을 예방하려 하지 않았고, 토지 분쟁으로 인한 강제 퇴거와 토지 압수에서 보호하지 않았으며, 힌두교, 기독교, 불교와 인권 단체에게 종교 공동 폭력이 일 년 내내 지속되었다. 지난 3월에는 수백 명의 무리가 인근 토지에 대한 재산 분쟁으로 국제 크리스티아니티 협회 (ISKCON) 사원의 벽을 손상시켰다. 1월 31일에 정체불명의 폭도들이 치타공 언덕지에서 한 불교 승려를 살해했다. 3월에는 다카의 여성이 머리와 가리개 착용에 대한 차별을 항의했다. 비정부기구 (NGO) Freedom House와 지역 종교 지도자들은 소셜 미디어가 최근 몇 년 동안 소수 종교에 대한 공격을 부추겼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거짓 정보가 종교적 약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긴장을 촉발한 것이었다"

오픈도어의 방글라데시 사역

방글라데시의 교회들을 강화하기 위한 오픈도어의 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성경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상 대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자화 및 훈련 제공
- 현지 언어로 된 성경 및 기독교 자료 제공
- 문해력 및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한 자원 제공
- 박해의 희생자들에게 즉각적인 구호 제공

